

2/0/1/6



이 가을, 인문학 살롱

국민자치대학
가을강좌

선착순 100명 사전접수 / 하동군 평생학습부서 055-880-2184



내 삶에 힘이 되어 준 한마디

9.7(수), 15:00 / 166회

종합사회복지관다목적실
정호승(시인)

하동 출신의 우리 시대 서정시인,
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 받는 시인으로 평가되는
정호승이 들려주는
고단한 인생의 사막에서
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한마디

인문학은 밥이다

9.20(화), 15:00 / 167회

종합사회복지관다목적실
김경집(인문학자)

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인문학자
김경집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인문학 이야기
창의적 융합과 연대의 중심에서
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문학에 대해
배우는 시간

